

한국인 EFL 학습자의 결정적 시기와 보편문법

한 혜 령
(영동대학교)

Hahn, Hye-Ryeong. (2000). The critical period in Korean EFL contexts and U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6, 219~239.

There has been a growing enthusiasm in Korea for the early education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in terms of the Universal Grammar (UG), in three different types of learning contexts — first language (L1), second language (SL), and foreign language (FL) learning contexts. While previous research findings in L1 and SL learning contexts suggest that UG principles and parameters are accessible to language learners only for the early years of lifetim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ir results — and even the methods — cannot be applied to EFL settings and that independent studies on the EFL context are required. It also proposes the recent UG notion of functional categories as the most appropriate subject in the discussion of Korean EFL learners' access to UG. Findings on foreign language contexts, including the author's own, strongly indicate that UG is not sensitive to learners' starting ages in FL settings. If young children in FL contexts cannot develop their interlanguage grammar based on UG, the existing teaching methods for young children should be revised.

1. 서 론

국제화 시대와 새로운 천년의 도래로 한국은 유례에 없었던 영어 열풍에 휩싸여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교육 전문가들을 당황시킬 정도로 고조되고 있다. 어린 학습자들은 나이든 학습자들보다 정말로 외국어를 배우기에 유리한 것인가? 1997년부터 정부 차원의 교육 결정에 따라 영어를 초등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채택한 것은 이러한 “어릴수록 좋다”의 논리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연령상의 이점은 아직 “수업을 통한 외국어 학습 상황”에서 경험적 검증을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 우리가 가진 근거는 일화적 수준의 사례들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한국 상황에서의 체계적인 연구는 결핍되어 있는 실정이다. 자연스러운 학습상황(naturalistic contexts)에서의 제 2 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과 대별되는 수업상황(instructional context)에서의 외국어 학습(foreign language learning)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또는 민감한 시기(sensitive period)란 과연 존재하는가? 만일 존재한다면, 정확히 어느 연령에 도달할 때 외국어를 제대로 습득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외국어 교육이 학교교육에 도입되어야 하는 시점을 논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학습 시작 연령의 결정은 단순한 성공 사례들보다는 원칙들에 근거하여 대답되어야 한다.

결정적 시기 가설(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또는 최적 연령(optimal age)에 대한 논의는 신경학적인 기반을 둔 모국어 연구들(Lenneberg, 1967; Penfield & Roberts, 1959)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외국어 습득에서의 연령 문제에 적용되면서 더 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Birdsong, 1998; Johnston & Newport, 1989; Long, 1990; Singleton, 1995; Scovel, 1969).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연령문제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학습자의 최종적 언어 능력이 학습자들이 언어를 배운 횟수보다는 학습자들이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시점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령에 대한 논의는 영어 교육을 교육과정 속에 도입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실질적 문제와 직결된다.

만일 외국어 습득에도 결정적 시기가 작용한다면, 이 시기가 종료되기 전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야 모국어 화자와 같은 성질의 언어능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외국어 학습에서의 연령상의 잇점이 단지 양적 차이의 문제라면, 우리는 꼭 조기 교육이라는 해결책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집중적 학습(intensive learning)으로도 짧은 기간 내에 같은 학습량을 얻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집중적 학습이 조기 학습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기 학습자에게서 어떠한 질적인 차이(qualitative difference)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적어도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환경적 측면의 세 가지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영어 학습자의 경우, 환경적 요인은 “영어가 상용되지 않는 사회에서의 수업을 통한 학습 상황”으로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고 볼 때, 다음 단계에서 제기할 질문은 위 환경에서의 조기 학습자가 인지적, 정의적인 유리함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학습 연령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언어 능력은 영역 특수적(domain specific)이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있으며,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Chomsky의 생성문법 관점에서 볼 때, 이 생득적인 능력의 핵심은 보편 문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최근 외국어 학습에서 쟁점으로 제 부상한 최적기 논쟁의 관심사는 바로 보편문법의 제약이 학습자의 언어 속에 존재하며, 보편문법이 모국어 습득 나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학습을 주도해 나아가는가의 문제에 있다. 본 연구는 모국어와 제 2 언어(second language, 이하 SL)의 습득 분야에서 최근까지의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편문법의 관점에서 개관하고, 기존 연구 결과를 우리 나라와 같은 외국어(foreign language, 이하 FL) 학습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점들을 논하며, 나아가서 본 연구자가 우리 나라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령과 보편문법의 관계에 대한 학위 논문(Hahn, 2000)의 결과들을 토대로 조기교육의 타당성을 재고할 것이다.

II. 모국어 습득에서의 결정적 시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Lenneberg (1976)는 뇌의 유연성 상실 및 뇌 기능의 특화와 같은 뇌의 변화는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의 종료를 특징짓는 것이며, 그 시기는 사춘기 부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의 많은 모국어 연구들은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를 인간 인지 능력의 성숙과 연결시키고 있다. 아동의 인지는 영역 특수적 언어 능력과 일반 인지 처리능력의 측면 양쪽 다 미성숙하다. 이 연구는 언어 특수적인 모듈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우선 일반 인지 성숙요인이 언어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언어 특수적 인지 성숙의 문제로 들어가기로 하겠다.

1. 인지 성숙과 언어 습득

어린아이가 발달되지 않은 인지와 제한된 기억 능력을 가졌음에도 모국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종종 기적에 비유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견 빈약해 보이는 어린아이의 인지가 몇몇 유형의 학습에 있어서는 어른의 발달된 인지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덜 발달된 인지적 장치로 인하여 아동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제약을 받으며, 이러한 제약으로 말미암아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스스로 이해 가능한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언어 습득에 알맞은 조건이라는 것이다(Bjorklund & Green, 1992; Rosansky, 1975). 같은 맥락에서, Newport (1990, 1991)는 어린아이의 정보처리 능력으로는 복잡한 언어 자극으로부터 제한된 수의 부분 밖에는 추출해 내지 못하며, 처리능력의 점진적인 증가와 함께 차차 복잡한 언어의 부분으로까지 무리 없이 처리영역을 넓혀나가기 때문에 언어습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어른의 성숙한 저장 용량은 들어오는 복잡한 언어자극 전체를 지각하고 기억할 수 있으며, 따라서 들어오는 복잡한 자극 전체를 모두 처리하려 하게 되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문제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 우월한 능력이 언어 습득에는 오히려 비효율적임을 들어 “열등함이 오히려 우월함이 됨(less is more)”을 역설적으로 주장하였다.

2. 언어 모듈의 성숙과 언어 습득

일반적 인지 기재와는 별도로, 영역 특수적 인지 기재들도 성숙과정을 거친다. 생성문법자들은 언어 능력이 인간에게만 특수하며 언어 영역에만 고유한 능력이라고 전제해 왔다. 문제처리(problem solving)를 비롯한 중앙처리자로서의 일반 인지기재와는 달리, 언어나 사지각과 같은 소위 모듈(module)들은 그 자체에만 독특한 기재를 따른다는 것이다. Fodor(1983)의 단원성(modularity of mind)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하나의 중앙처리자와 여러 개의 독립 모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듈은 영역 특수적이며, 자동성, 신속성 등을 특징으로 할 뿐 아니라, 발달 시간표 상의 제약을 받는다. 즉 어느 시기에 이르면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 성숙 시기의 종결은 이러한 능력들이 결정적 시기와 관련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1) 언어 능력의 하위 모듈과 결정적 시기

한편 언어 능력 자체도 또한 여러 개의 하위 모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최근의 신경학적 발견들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Walsh와 Dilla(1986)은 음운부와 통사부를 담당하는 세포들의 모양은 서로 다른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언어의 하등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는 음운부는 피라미드 상의 세포가 담당하는 한편, 고등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는 형태부 및 통사부는 성상의 세포가 담당하는데, 피라미드 모양의 세포는 6-7세 가량이면 발달을 멈추는 반면, 성상 세포는 15세, 또는 그 이후까지도 계속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이를 결정적 시기와 관련시키면, 원어민 화자와 같은 발음을 습득할 수 있는 시기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이면 이미 종결되는 반면, 동일 아동이 원어민 화자와 같은 통사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그로부터 거의 10년 이후까지도 열려있다는 것이 된다. 즉, 원어민과 동일한 발음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습득 시작점을 다소 미뤄도 무방하다는 논리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통사 부문을 단일체로 보았을 때의 이야기이다. 사실 통사부문 자체도 여러 개의 하위 부분으로 나뉘어지며, 각 하위 부분마다 발달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2) 통사적 능력의 하위 부문과 결정적 시기

Eubank와 Gregg(1999)는 보편문법 안에서도 다수의 결정적 시기가 적용된다고 제안했다. 보편 문법을 원리들(principles)과 매개변항들(parameters)로 볼 때, 원리들은 일시에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핵 계층(X-bar) 원리와 같은 원리들은 모국어 화자의 언어발달표 상에서 상당히 일찍 출현하는데 반하여, 결속(Binding)이나 하위 인접(Subjacency) 원리와 같은 것은 비교적 늦게 출현하는 것으로 모국어 발달 연구들에서 제안되고 있다.

Curtiss(1977, 1988)의 연구로 잘 알려진 Genie와 Chelsea의 경우, Genie는 생후 18개월부터 13세까지 언어 입력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으며, Chelsea는 31세 이전까지 언어로부터 격리되어졌다. 그후 언어에 다시 노출된 Genie는 기능어 및 이동규칙을 사용할 수는 없었으나 기본적인 NVN 구조를 만들어 낸 반면, Chelsea의 발화는 구조가 거의 결여된 발화만을 할 수 있었다. Gleitman과 Newport (1995)는 Chelsea가 Genie와는 달리 모든 언어 부문의 결정적 시기 전체를 놓친 것이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ubank와 Gregg(1999)는 이를 보편문법의 제 원리들에 관련된 다른 결정적 시기와 관련시키고, 특히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ies)를 습득하는 것과 관련된 연령문제를 논하였다. 이에 따르면 Genie 는 시제(Tense) 및 일치(Agreement)와 같은 기능범주의 습득에 영향을 주는 시기만을 놓쳤으나, Chelsea는 핵 계층의 관계와 같은 보다 기본적인 통사적 관계의 습득 시기까지 놓친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Platzack(1996)은 언어 습득 및 언어 마모(language attrition)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기능범주와 관련된 자질들의 강약과 같은 매개변항은 이른 아동기에 뇌에 각인된다고 제안했다. 현재 최소주의(the Minimalist Program)에서, 기능범주에 연결된 매개변항은 언어간의 차이를 야기시키는 부분으로서, 그 변항의 자질(features)이 강하나 약하나를 습득하는 것은 신경망에서의 세밀한 조정을 요하는데, 이러한 특수한 신경성숙은 생후 만 7년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고찰한 모국어 습득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결정적 시기가 신경학적, 언어학적, 인지적 근거들로 뒷받침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III. SL 습득과 결정적 시기

1. 통사-형태적 습득과 SL 학습자의 연령

Scovel(1969)를 비롯한 SL 습득 연구자들은 모국어에서의 습득 연령에 대한 발견을 SL 습득에 확대 적용하였으며, 발음에 관한 한 외국어 습득에도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한편, 문법 부분에서의 연구는 음성학적 연구보다 그 본격적인 논의가 늦어졌지만, 역시 일찍 시작한 학습자가 통사적으로도 유리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Dulay, Burt와 Krashen (1982)은 통사-형태론적 습득을 속도 면에서 비교한 결과, 성인은 단기적으로 볼 때 아동보다 학습속도가 빠르며 10세 정도의 나이든 아동들이 가장 빠른 습득 속도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린 아동들이 나이든 아동들을 추월했으며, 최종 능숙도 면에서 일반적으로 일찍 습득을 시작할수록 유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Patkowski(1980)는 학습자가 목표어 국가에 도착한 나이와 그들의 통사적 수행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가 성립함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15세 이하의 연령에 미국에 도착한 피험자들은 상위 점수에 밀집분포된 반면에, 그 이후에 도착한 학습자들에게서는 정상분포가 보였다. 이는 15세를 기점으로 하여 언어 습득에 활용되는 습득기재가 달라짐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의 연령 효과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꼽히는 Johnson과 Newport(1989)의 실험은 보편문법의 몇몇 원리를 포함하는 통사적 능력을 시험한 결과, 역시 어린 학습자들은 성인 학습자들보다 SL 학습에서 우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이들은 한국어과 중국어를 각각 모국어로 하며, 3세부터 39세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연령에 미국으로 이민 온 학습자들로서, 이들의 통사적 형태소 및 몇몇 보편문법 원리에 대한 실험에서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첫째, 7세 이전에 습득을 시작한 학습자들은 모국어 화자와 구별이 불가능하였다. 둘째, 7세 이후 17세까지는 나이의 증가에 반비례하여 하향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17세 이후에서는 시작 연령과 통사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저조한 능력을 보이는 가운데, 그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일찍 시작한

학습자가 선천적 언어능력을 사용하여 균일한 완성도에 이르는데 비해, 늦게 시작하는 학습자는 일반 인지기재를 사용하지므로 일반 기재를 사용하는 여타 과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분포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Johnson과 Newport의 연구를 보면,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도 연령이 주는 차이는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인 것으로 해석된다. Schachter (1988)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회의 창문(windows of opportunity)이 일정 기간동안 열렸다가 닫혀버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Patkowski나 Johnson과 Newport가 주장하는 것 같이 7세 가량부터 그 창문이 점점 닫혀지기 시작한다면, 7세부터 15-17세까지의 기간 사이에는 외국어를 일찍 배우기 시작할수록 유리한 것이 된다.

2. 보편문법 틀 안에서의 연령 문제 연구: 한국인 ESL 연구

보편문법들의 통사적 원리들이 외국어 습득 시점과 관련시켜 연구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1980년대의 연구들은 원리 및 매개변항의 이론들 속에서 제시된 원리들과 매개변항값의 습득이 외국어 학습자에게 가능한지를 검증하는데 주력하였다. 한편, 최근의 연구들은 1980년대 후반 제기되어 현재 생성문법의 주요 부분이 된 기능범주가 습득가능함가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우선 원리 및 매개변항의 이론들 내에서의 분석으로는 첫째, 보편문법의 각 원리에 대한 학습자의 접근 가능성을 따져보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학습자의 목표어 발화 속에서 보편문법의 원리가 준수되는지를 검사하거나, 학습자에게 해당 원리와 관련된 문장을 제시한 후 그 문법성을 판단하거나 문장과 일치되는 해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원리들과 연결된 다수의 매개변항의 값이 있으며 외국어의 습득이 매개변항 값을 새로 습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학습자가 그 값을 새로이 습득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다. 셋째, 원리의 습득이나 매개변항 값의 습득과 같은 지식의 변화는 이와 연결되는 목표어 중간언어 상의 여러 구조들의 일시적인 변화, 즉 군집화 현상(clustering effect)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군집화 현상이 외국어의 습득에서도 나타나는가를 따짐으로써, 이 변화가 보편문법에 근거한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다음으로 기능범주에 대한 연구에서는 원어민 화자의 기능범주 지식이 외국어 학습자에게 습득가능한지를 알아보는데, 주로 학습자의 발화 분석의 방식을 택한다. 첫째, 학습자 발화를 분석하여 그 속에 기능범주의 언어적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둘째, 기능 범주가 습득되는 과정이 원어민 아동의 과정과 유사한가를 따져봄으로써 보편문법의 작용 여부 및 영향력을 검사할 수 있다. 셋째, 기능범주나 기능범주와 연결된 매개변항 값이 습득될 때 일어나는 군집화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보는 방법이 있다.

보편문법의 내용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SL로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들은 주로 원리 및 매개변항을 연령문제를 관련시킨 연구들인데, 이들 연구에서 결정적 시기 가설은 대체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Lec(1992)의 실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면서 동일한 기간 동안 영어에 노출된 SL 학습자들만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였다. 피험자들은 모두 78명의 영-한 이중어 사용자로서, 대략 3년 정도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에 노출되었다. 가장 일찍 시작한 연령 집단은 3세부터 영어에 노출되었으며 실험 당시 피험자를 (i) 6:0세에서 7:11세에 속하는 어린 아동 집단, (ii) 8:0세에서 10:11세에 속하는 늦은 아동집단, (iii) 11:0세에서 13:11세에 속하는 사춘기 시작기의 청소년 집단, (iv) 14:0세에서 17세에 속하는 청소년 집단 (v) 19세부터 25세까지의 성인 집단으로 각각 나누어, 각 집단이 보편문법의 원리의 하나인 결속(Binding)의 A원리(Principle A)를 습득하였는가를 조사하였다. 결속 A는 재귀대명사(reflexive pronoun)의 해석과 관계되는 원리로서, 한국어의 결속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는 자기 또는 자신과 같은 표현이 있으며, 영어는 *-self* (예를 들어 *myself*, *himself* 등)가 있다. 영어의 결속원리에 관여하는 지배범주(GCP)의 매개변항 값이 한국어의 GCP의 값보다 더 제약적이라는 사실은 모국어를 넓은 매개변항 값으로 일단 고정시켰던 학습자가 새 언어를 좁은 매개변항 값으로 새로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Lee의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i) 문장을 듣고, 그 문장과 제시된 그림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과제와 (ii) 문장을 듣고 그 문장의 뜻에 부합되는 그림을 선택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았다. 그 결과 나이든 아동 집단 및 사춘기 시작기의 청소년 집단은 영어의 매개변항 값을 성공적으로 습득했음을 보여준 반면, 어린 아동 집단과 성인 집단은 이 값을 습득하지 못했다.

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근거로 Lee는 이 원리가 성숙 단계상 어린 나이에는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사춘기가 지나기 전에 습득되지 않으면 새 대개 변형 값을 습득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보다 최근의 심리학적 실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Shim(1994)의 연구 역시 미국 거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보편문법의 원리 중 하나인 하위 인접 원리(Subjacency)와 앞에서 논의한 결속 A 원리를 실험하였다. 피험자는 각각 시작연령이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에 해당하는 다섯 집단, 총 120명의 한국인 영-한 이중어 사용자로서, 위의 두 원리에 대한 영어의 값을 습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법성 판단 과제 및 반응시간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문법성 판단에 기초한 목표어인 영어의 두 원리들에 대한 지식 및 반응시간에 기초한 유장성 양면에서 5세 가장까지는 원어민과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그 이후부터는 시작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수행이 저조하였으며, 사춘기가 시작되는 12-14세 가장에서부터 원어민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위의 Johnson과 Newport (1989)의 결과와는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부터는 모국어처럼 외국어를 습득하는 가능성이 점차로 줄어든다는 점을 두 연구가 공히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들은 결국 일찍 외국어에 노출될수록 보편문법의 원리에 따라 원어민에 가까운 언어능력을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조기 교육은 외국어 습득 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결정적 시기 가설을 지지하는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FL로서의 영어를 수업을 통하여 배우는 학습자들(EFL learners)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SL로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ESL learners)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SL 상황의 연구결과를 FL 상황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IV절에서는 FL 상황에서 과연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기존 연구들 및 본 연구자의 연구를 중심으로 논하겠다.

IV. EFL 상황에서의 결정적 시기

앞절에서 검토된 연구들은 자연습득 상황의 SL 학습자들의 언어지식과 연령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일한 상관관계가 수업에 의존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FL 환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Burstall(1975)은 11세부터 학습을 시작한 FL 학습자 집단이 8세부터 학습을 시작한 집단보다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두 집단은 각각 5년간 수업을 통해 외국어를 배운 후 언어수행을 평가받은 결과, 늦게 시작한 집단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두 집단이 16세에 이른 시점에서 — 즉, 어린 집단은 8년간, 나이든 집단은 5년간 학습한 후 — 평가를 받았을 때에도 결과는 유사하였다. Ellis(1994) 역시 수업을 통한 외국어 학습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교실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시기 가설이 지지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앞서 논한 한국어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습득시작점 연구들도 목표어 사회에서의 자연스러운 제 2언어 습득을 다룬 것이니만큼, 한국에서 교사로부터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목표어 사회가 아닌 한국 FL 상황에서의 연령과 보편문법의 관계에 대한 독자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연구 방법 면에서도 SL 연구에 사용된 기존의 방식을 FL 상황에서 그대로 재연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기존의 연령과 관계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어진 시간에 학습자로 하여금 문법성을 판단하거나 해석상의 선호도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어떤 학습자의 문법 판단이 보편문법의 원리와 관련된 실험 문장들을 제대로 판단하면 이를 그 학습자가 해당언어에 대해 보편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일회적으로 시행되는 실험 디자인 안에서 학습자의 판단이나 수행이 올바르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보편문법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서, 결과는 같아 보인다고 해도 그 습득 경로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영어 교실에서와 같이 학년이 올라가고 진도가 나아갈수록 비의사소통적이고 문법 설명식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학습자가 문법의 설명을 통해서 배운 명시적인 지식(explicit

knowledge)을 의식적으로 적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실험결과를 왜곡되게 만든다.

명시적 지식 사용의 문제는 일시적 수행결과가 아니라 습득의 과정을 보는 종적 연구를 사용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최근 모국어 습득 연구들에 따르면, 보편문법의 발현은 수행 결과(product)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 과정(process)중에도 나타나므로, 보편문법의 적용을 받는 원어인 아동들의 습득과정과 FL 학습자의 과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일정 연령의 FL 습득자가 보편문법의 주도하에 습득을 이루어 나아가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만일 양자간에 공통된 발달양상이 보인다면 이는 FL 학습자에게 보편문법이 작용한다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또다른 문제는 기존의 연구가 FL 상황 학습자의 초기 언어발달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기존 연구들은 결속원리, 하위인접원리, 공범주 원리(Empty Category) 등 생성문법의 1980년대 이론들인 지배 결속이론의 원리 및 매개변형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원리들이 적용되는 문장들은 종속절을 포함하는 상당히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원리들이 교실 상황에서 배워지려면 수년이 걸려야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엔 영어를 시작하는 아동은 종속절을 포함하는 복문 구조를 배워 결속원리나 하위인접원리에 대한 실험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므로 더 이상 아동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시작 연령의 차이가 중화되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고려할 때, 초기의 2-3년간의 발달 속에서 나타나질 수 있는 보편문법의 원리를 택하여 그 발달양상을 보는 것이 늦게 발달되는 원리를 보는 경우보다 연령의 변인을 민감하게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보겠다.

1980년대 후반으로부터 제기되어 현재 최소주의(the Minimalist Program)의 핵심적 부분을 이루고 있는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ies)는 모국어 습득에서 거의 가장 초기에 보여지는 보편문법의 지식이며, 최근 모국어 습득에서의 연구는 기존의 아동 언어발달의 발화 자료를 기능범주의 발달로 재해석하고 있다. 만일 한국의 학습자들이 기능범주의 발달을 보인다면, 이는 이들이 학습초기에 보편문법에 접근 가능하다는 증거가 된다. 만일 기능범주의 발달이 일부 시작 연령에만 나타난다면, 이는 FL에서 결정적 시기가 작

용함을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본 절에서 소개될 본 연구자의 연구는 습득 초기에 관찰될 수 있는 기능 범주의 습득과정을 장기간 관찰하는 종적인 연구 디자인을 채택하였다 (Hahn, 2000).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수업을 통한 영어학습에서 조기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과연 보편문법이라는 관점에서 중학교에서부터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와 질적인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세 연령집단에 속하는 학습자들의 문법발달 과정 속에서 보이는 발화자료를 20개월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종적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총 9명으로 표 1과 같이 3 집단으로 나뉘어졌으며, 학습자들은 이 조사 이전에 영어를 배운 경험이 없었다.

표 1
피험자 집단별 시작 연령 및 구성

연령집단	평균연령	인 원	조사기간
유치원생 집단	5;6	3	20 개월
초등학생 집단	8;6	3	26 개월
중학생 집단	12;5	3	20 개월

2) 문법 측면 및 발화 자료

이들의 중간언어 문법에서 영어 원어민 아동의 문법발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어휘범주 및 기능범주의 발달 양상이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들의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구조가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3) 발화 유도 및 수집

학습자가 자신의 현 문법발달 단계에서의 긍정, 부정, 의문 구조를 만들

어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개별 학습자간의 1:1 형식 과제 중심적(task-based)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였다. 과제들은 정보의 차이(information gap)에 근거하여 학습자가 질문을 함으로써 그림을 알아맞히거나, 학습자가 연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그림을 알아맞히도록 하는 등의 게임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습자들은 그 과정에서 설명, 대조, 질문 등을 영어로 수행하는 가운데 긍정, 부정, 의문을 발화해야 했으며, 과일에 성공할 때마다 학습자들에게 사탕과 같은 보상을 주었다. 발화 수집은 약 40일 간격으로 15회(초등학생의 경우는 17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발화는 녹취 전사되었다.

4) 분석 방법

자료들은 아래 측면들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측면에서 본 발달 양상을 영어 원어인 아동의 양상과 비교, 이에 근거하여 학습자 시작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1) 발달 순서

각 학습자들의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구조를 분석하여 그 발달 단계가 원어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기능범주가 없는 VP 상태의 절 구조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IP, CP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을 반영하는지 조사하였다.

(2) 군집화 현상(clustering effects)

원어인 아동에게서 VP, IP, CP 단계가 시작할 때 보이는 긍정, 부정, 의문문의 일시적인 변화가 한국어 학습자의 각 발달 단계마다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3) 모국어 발달에서 보이지 않는 중간언어 구조

원어인 아동 발달에서 나타나지 않는 즉, 보편문법이 허용하지 않는 구조가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2. 연구 결과

위의 세 부분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첫째, 학습자들의 발달 순서는 상호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긍정, 부정, 의문문을 따로 볼 때, 각각의 문형은 처음에는 기능범주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다가 차차 IP와 CP에 관련되는 구조들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원어된과는 달리 VP 단계 이전에 동사구 즉 VO 또는 SVO 라고 볼 수 없는 S-(be)-X 의 단계가 모든 학습자들에게서 관찰되었다. 따라서 모든 학습자들은 원어인 아동과는 약간 다른 습득 단계를 보였으며, 한편 이 학습자간에는 시작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인 학습자를 영어 원어인 아동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영어 원어인 아동과 한국인 학습자의 습득 단계

영어 원어인 아동		한국인 EFL 학습자		
발달단계	출현 구조	발달단계	출현 구조	
VP	SVO	Pre-VP	S (be) X	
	NEG SVO		S (be) NEG X	
IP	SVO?	VP	(S be) X?	
	S (AUX) VO		S (be) VO	
	S (AUX) NEG VO		S (be) NEG VO	
CP	S (AUX) VO?	IP	S (be) VO?	
	AUX SVO?		CP	AUX SVO?
	WH AUX SVX?			WH AUX SVX?

둘째, 학습자들은 자신이 속한 연령에 관계없이 VP, IP 단계에서 기대되는 긍정, 부정, 의문문간의 군집화 현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CP 단계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속한 연령에 관계없이 군집화 현상이 보였다. 즉 군집화 측면에서도 연령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학습자들은 보편문법의 틀 안에서 나타날 수 없는 몇몇 구조를 보였는데, 특히 일부 학습자들에게서 *SV-NEG-O*와 같은 영어 원어인 아동에게서 보이지 않는 구조가 발견되었다. 이는 영어의 기능범주인 INFL(또는 T)의 매개변항 값과 관련되는 것으로 영어와 같은 약한 INFL 값을 가진 자연언어에 나타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이 구조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두 학습자는 각각 유치원생 및 중학생으로, 이들이 보편 문법 이외의 규칙을 설정해서 사용했음을 보여주었다.

위 결과들은 학습자의 시작 연령에 따라 보편문법의 작용 정도가 달라진다는 일반적인 가설을 입증해주지 않는다. 단, 이 연구는 소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인(qualitative) 연구로서, 사례 연구(case study)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 검증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3. 논 의

FL 상황에서 연령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는 FL 환경에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언어 입력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Singleton(1989, 1995)는 특별히 SL 환경에서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연구결과를 FL 상황에 연장시키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데, 두 상황간의 중요한 차이를 목표어 입력량의 차이로 파악하고 있다. 조기교육의 이점이 나타나려면 일정한 이상의 입력이 요구되는데, FL의 상황은 그만큼의 입력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SL 연구들은 초기에 성인학습자들이 더 우수하다가, 1년 정도가 지나면 어린 학습자들이 성인 학습자들을 따라잡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Singleton(1989)은 FL의 수업 상황에서 어린 학습자가 성인 학습자를 추월하여 초기 성인의 우위가 사라지도록 하기 위한 입력량을 확보하는 데는 대략 18년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어린 학습자가 학습 시작 후 18년 이내에는 나이든 학습자를 추월할 수 없다는 뜻이며, 18년이 지났을 때는 어린 나이에 학습을 시작했던 학습

자들도 20세가 넘는 성인이 되어버렸을 것이므로, 연령차이가 의미 없어져 버린다.

생성문법의 언어습득론을 따르면, 모국어를 배우는 아동들은 입력의 빈곤(poverty of input)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습득하며, 경험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입력의 역할은 단지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보편문법의 원리들과 매개변항들을 발동시키는 촉매(trigger)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된다. 그러나 모국어를 습득하는 아동들이 아무리 적은 입력을 받는다 해도, 보편문법의 원리들을 발동시키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양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Snow와 Hoefnagel-Höhle (1982)이 제안하는 것과 같이 입력은 양적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습득을 증가시키는 점진적 효과(graded effect)보다는 양적인 최소치를 만족시켜야 하는 최소치 효과(threshold effect)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수업 상황에서 언어습득이 대체적으로 실패하는 다른 요인으로서 언어학습에 개입되는 인지적 원리들의 본질적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Bley-T Vroman(1989)은 외국어 학습자가 모국어 습득자와는 달리 시행착오와 가설 검증의 과정에 기초하여 언어를 학습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Birdsong (1994) 역시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의 차이를 습득에 관여하는 인지 기제 상의 차이로 설명하면서, 일반 인지 기제의 주요기능인 문제 해결(problem solving)은 외국어 습득자의 성공 저조에 대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교실 수업을 통하여 외국어를 배우는 FL 상황에서는 더욱 가능한 일이다. 보편문법과는 달리 문제 해결이라든지 가설 검증은 학습자가 궁극적으로 올바른 결과에 도달하도록 보장해 주지 못하는데, 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세운 일정 가정이 틀리다는 것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다른 가정들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들일 때 이들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언어 입력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과 다른 인지기제가 개입한다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수업 상황에서의 언어 입력으로는 보편문법의 원리들과 매개변항들의 값을 이끌어내기에 불충분하므로, 그 결과 대안으로서의 인지적인 통로라 할 수 있는 일반 문제 해결이 언어 처리자 및 습득 기제로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V. 결 론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 생물학적으로 성숙의 제약 속에 있는 그 습득의 기재가 보편 문법이라면, 이제까지의 논의들은 EFL 학습자로서의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ESL의 경우에 주장되는 바와 같은 조기학습의 이점을 누릴 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한다. 현재 한국의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령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서둘러 조기교육을 시키는 것은 양적인 유익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찍 학습을 시작한 아동들이 늦게 시작한 아동들보다 더 오랜 기간의 학습을 하고도 더 저조한 능력을 나타냈다는 Burstall (1975)의 연구보고는 이러한 기대와 상치된다. 보편문법의 활용 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바에야, 일반 인지 능력이 더 발달된 학습자들이 언어 입력을 더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법칙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어린 학습자들은 입력을 추상화 된 법칙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므로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 비효율성은 비단 인지적인 측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학습에서의 성과는 학습 동기에 역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 동기가설 (the Resultative Hypothesis)에 따르면, 학습에서 성공하는 학습자들은 계속 그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할 동기가 생기게 되지만, 학습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은 동기가 좌절되어 그 방향으로 노력을 덜 하게 된다 (Herman, 1980). 학습 시도와 이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게 되면, 이전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때 미리 배운 경험을 가진 학습자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오히려 중학교에서부터 처음으로 배우는 학습자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언어 입력의 양에 관한 것이다. Singleton의 추정한 바와 같이 FL에서의 입력 양이 SL 상황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부족한 것이라면, 그리고 FL 상황에서는 그 때문에 보편문법이 어린 연령의 학습자에게도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입력을 주어야 보편문법이 작용할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조기 교육을 하는 것이 기정화 된 사실이라면, 이

시기 안에 살아있을지 모르는 보편문법을 사용되도록 집중적으로 입력을 주어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만일 장기간의 집중적인 입력 공급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차라리 영어교육의 도입 시기를 뒤로 늦춰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교육의 인지적인 측면만을 그 관심사로 하였다. 그러나 포괄적인 결정적 시기 논의를 위해서는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또한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영어교육에서 조기교육의 문제의 논의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라고 해야할 것이다. 아동들의 습득과정 및 그 이면에 있는 습득기제를 이해하는 것은 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들로 구성된 수업시간들이 지나간 후 결국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관용적 표현들(formulaic expressions)과 어휘들과 노래들과 게임들만 남고 이 시기에 정말로 중요한 보편문법의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의 결집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Birdsong, D. (1994). Decision making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6, 169-182.
- Bjorklund, D. F., & Green, B. L. (1992). The adaptive nature of cognitive immaturity. *The American Psychologist*, 47, 47-54.
- Bley-Vroman, R. (1989). What is the logical problem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S. Gass & J. Schachter (Eds.), *Linguistic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41-6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rstall, C. (1975). Factors affecting foreign-language learning: A consideration of some relevant research findings. *Language Teaching and Linguistics Abstracts*, 8, 105-25.
- Curtiss, A. (1977). *Genie: A linguistic study of a modern day "Wild Child"*. New York: Academic Press.

- Curtiss, A. (1988). Abnormal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modularity of language. In F. J. Newmeyer (Ed.), *Linguistics: The Cambridge survey. 2* (pp. 96-11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lay, H., Burt, M., & Krashen, S., (1982). *Language two*. Rowley, MA: Newbury House.
- Eubank, L., & Gregg, K. (1999). Critical period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D. Singleton (Ed.), *Language acquisition: The age factor*.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Fodor, J. A. (1983). *The modularity of mind: An essay on faculty psychology*. Cambridge, MA: MIT Press.
- Gleitman, L., & Newport, E. (1995). The invention of language by children: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influences on the acquisition of language. In L. Gleitman & M. Liberman (Eds.), *Language: An invitation to cognitive science* (2nd ed.). 1 (pp. 1-24). Cambridge, MA: MIT Press.
- Hahn, H. (2000). *UG availability to Korean EFL learners: A longitudinal study of different age grou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Johnston, J. S., & Newport, E. L. (1989). Critical period effect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influence of maturational state on the acquisition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ognitive Psychology, 21*, 60-99.
- Lee, D. (1992) *Universal Grammar, learnability and the acquisition of English reflexive binding by L1 Korean speak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 Lenneberg, E. (1967).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ew York: John Wiley & Sons.
- Long, M. H. (1990). Maturation constraints on language development.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2*, 251-85.
- Newport, E. L. (1990). Maturation constraints on language learning. *Cognitive Science, 14*, 11-28.

- Newport, E. L. (1991). Contrasting conceptions of the critical period for language. In S. Carey & R. Gelman (Eds.), *The epigenesis of mind* (pp. 111-13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Patkowski, M. S. (1980). The sensitive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syntax in a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 30, 449-472.
- Penfield, W., & Roberts, L. (1959). *Speech and brain mechanism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latzack, C. (1996). The initial hypothesis of syntax. In H. Clahsen (Ed.), *Generative perspectives on language acquisition* (pp. 369-414). Amsterdam: John Benjamins.
- Rosansky, E. (1975). The critical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language: Some cognitive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6, 92-102.
- Schachter, J. (1988).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its relationship to Universal Grammar. *Applied Linguistics*, 9, 219-35.
- Shim, R. J. (1994). *The sensitive period for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 experimental study of age effects on Universal Grammar and language transf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Singleton, D. (1989). *Language acquisition: The age factor*.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Singleton, D. (1995). A critical look at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In D. Singleton & Z. Lengyel (Eds.), *The age facto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Snow, C., & Hoefnagel-Hohle, M. (1982). School age second language learners' access to simplified linguistic input. *Language Learning*, 32, 411-30.
- Walsh, T., & Diller, K. (1986). Neurolinguistic considerations on the optimum age for second language learning. In K. Diller (Ed.), *Individual differences and universals in language learning aptitude* (pp. 3-21). Rowley, MA: Newbury House.